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 장단기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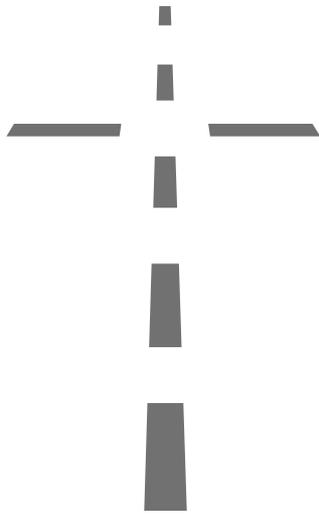
제안서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 장단기발전위원회

제안서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

축 사	04
발간사	06

---

1. 본부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제언	08
2. 감리교회 미래세대계획을 위한 제언	16
- 교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3. 한국감리교회 자치 100주년을 위한 제언	30
- One nation_One Methodist	
4. 재개발지역내 개체교회 위기에 대한 제언	35
- 서울연회 은평동지방회 은현교회 사례를 통해 보는 대책	

---

참고자료   존 웨슬리의 영성	40
제35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	58

---

## 미래의 청사진!

감독회장 이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감리교회 모든 지체와 신실한 감리교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27회 총회기였던 2007년 백서발간, 31회기였던 2016년 보고서 발간, 32회기였던 2018년 백서발간 이후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35회기에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오늘에서 내일을 내다보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제안서에서는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본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을 제안해 주셨고, 미래세대와 미래목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 회기마다 빠지지 않았던 웨슬리의 영성은 그동안의 자료들을 총괄하여 참고자료로 답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감리회본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인적 물적 한계가 분명한 현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성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한국감리교회 자치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도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감독회장에 취임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안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교회가 사회의 근심이 되고, 비판을 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돌아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살펴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깊은 영성과 구원의 열심,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위대한 각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회심으로 심령과 교회를 갱신하였고, 개혁으로 사회와 민족을 향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자기성공에 도취되어 겸비함을 잃어버린채 인간의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두려움으로 외적제도뿐 아니라 내적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나날이 새롭고, 든든히 서가며,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고,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논의의 실마리이고, 더 많은 문제를 풀기위한 기본적인 매듭입니다. 이 제안서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잘 살펴져 제도화되고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여지는 기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감리교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단기발전위원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채 성 기 감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제36회 총회 대표들과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음의 철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엮어맨 결백을 끊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땅에 들어온 지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인들에게는 2025년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로버트 새뮤얼 맥클레이 선교사가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요청을 받고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내한하여, 김옥균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육, 의료선교에 대한 고종의 허락을 받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의 활동으로 인해 그 다음 해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공식적으로 발을 딛고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감리교회는 한국 선교의 문을 연 교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교단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조직을 결의한 이후 지금까지 감리교 미래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회 총회부터 제34회 총회까지 16년 동안(2006~2022년), 웨슬리 영성, 교회의 건강성 회복,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효율적인 감리회 구조개혁, 교회부흥을 위한 전도프로그램, 선교사 훈련과 파송 그리고 관리, 은급제도, 감독회장 제도, 효과적인 총회 각 위원회 위원 구성 방향, 행정서식 개선, 통계표 표준화 및 온라인화, 공교회성 회복 등에 관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총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한 제안들이 교리와 장정에 반영 되는 구속성 있는 결의는 아니지만, 본부임원들과 본

부파송위원들 그리고 연회파송위원들과 전문연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연구한 제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이나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여 작은 부분부터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35회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주제와 내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장단기발전위원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연구하여 보고하는 결과물이니만큼 귀 기울여주시고 좀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그 여파로 인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교 140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물음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천 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존 웨슬리가 활동했을 뿐 아니라, 한때 인도에 윌리엄 캘리 선교사를, 중국내지선교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를,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1882년 우리나라말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번역해 복음을 전한 존 로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을 비롯,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서구국가들의 경우, 현재 기독교의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끊임없이 웨슬리 영성을 함양하고, 그 영성을 견인할 제도를 개선함으로 감리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좀 더 밝은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본부 임원들과 본부파송위원들, 그리고 연회파송위원들과 전문연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본부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제언

2021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sup>1)</sup>에서 감리회 본부(이하 본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83%는 비효율적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모습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응답자 5명 중 4명은 본부 행정 운영에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응답자가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많을수록 비효율적이라고 대답했겠다고 짐작한다. 그것은 그들이 본부 행정에 느끼는 체감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경험했다는 점에서 막연한 반응이 아닌 체험적인 응답이므로 장단기위원회는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에서 제35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제1분과는 본부 행정전산화를 제안하지만, 본부의 행정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무엇을 세워야 하고, 비교 대상으로 어느 조직을 선택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입 비용 그리고 실무자인 직원의 처지, 행정의 대상자인 모든 감리회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1분과는 본부 행정전산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는 누구를 위한 본부 행정전산화인가? 실무자를 위한 전산화인가 아니면 대상자인 감리회원인가? 둘째는 행정전산화가 ‘본부-연회-지방회-개체교회’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그것은 다음 100년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1)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이성우 박사에게 의뢰한 설문조사로 2021년 6월 21~25일 동안 감리회원 1만 4천 명에게 문자로 보내어 487명에게서 응답받았다. 설문조사 내용은 공개 되지 않았다.

단기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최택용 위원은 오랜 기간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에 근거하여 본부 행정전산화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했다.<sup>2)</sup> 기본안은 정부 기관에서의 경험에서 바라본 감리회 본부 행정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현실에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뜻이 아닐까?

조직 행정의 과학화 및 능률화, 간소화를 향한 행정전산화는 20여 년 전부터 정부와 일반 기업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달라진 변화를 체감하며 살아가는 감리회원 모두는 그렇지 못한 감리회 행정에서 얼마큼 실망감을 느끼고 있겠는가?

감리회에서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짐작한다. 행정전산화는 신속 정확한 자료처리로 각종의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업무의 양과 질을 향상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서류 정리의 간소화, 통계표의 간편하고 신속한 집계 및 관리, 문서작성 통일화 등과 같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행정 업무 처리 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직원의 업무 편리함을 제공하고, 조직 안에서 정보를 원활히 사용하면서,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재정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자산과 비품 시설물 등의 실시간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기기 등 채널 다양화로 시·공간 제약 없는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 각 분야 및 기관에서 진행되는 전산화처럼, 교역자와 평신도의 교육 효율을 높이는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게 한다. 감리회와 기독교 자료·서적 등에 관한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 모두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래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본부와 연회 그리고 지방회와 개체교회 행정에 있어서 전산화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간단한 작업으로 조직을 일원화하여 서로 소통하는 다른 조직의 상황에 비교하여 보면, 본부와 연회 그리고 지방회와 개체교회 사이에 소통이란 달나라 이야기이다. 감리회의 자원 보고인 통계표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업 관련 및 회계 관련 서류들도 수작업과 대면 결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집행 및 지출 행위가 지연되거나 집행 후 결재하는 사후 결재 등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며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전산화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대상자인 감리회원 모두에게 본부와 연회, 지방회에 친화감을 조성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정전산화를 만들어야 한다.

2) 본 글 뒤에 둔다.

## II 도약 100년을 향한 전산화

감리회 행정이 본부와 연회 그리고 지방회가 연동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본부만이 아닌 감리회 전체 전산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치 100년’을 마무리하는 남은 기간(2025년에서 2030년까지)은 다음 100년(나는 이를 ‘도약 100년’이라 부른다)을 향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행정전산화는 ‘도약 100년’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1분과는 남은 6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행정전산화 과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우선, 현재 행정 상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행정의 실무자와 대상자(감리회원)가 느끼는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소위 ‘행정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간 실무자와 대상자 관점에서 본부와 연회, 지방회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단계로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를 제안한다. 기본계획을 본부와 연회 실무자와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행정전산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전산화를 실행하도록 한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전산화 프로그램은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기간별 추진은 큰 변화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변화에는 행정 실무자의 수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행정의 대상자인 감리회원에게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홍보와 교육의 시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정전산화 점검위원회’를 통해 2년마다 전산화 과정에 관한 진행을 파악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본부와 연회와 지방회를 연계된 전산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ERP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우선은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관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ERP를 도입하여 사용하면서 감리회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전산화 진행 추진표

	주체	소요 기간	대상	내용
1단계	행정실태조사위원회	1년	연회와 지방 본부 모든 부서	현행 행정 실태조사
2단계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2년	본부, 연회, 지방회	행정전산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3년	본부, 연회, 지방회	계획 추진 및 실행
3단계	행정전산화점검위원회	2년마다	본부, 연회, 지방회	2년마다 점검 후 총회 보고

아래는 행정전산화 개요와 ERP의 효율성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 1. 행정전산화를 위한 실태 표본 조사 : 행정실태 조사위원회

---

- 본부 : 모든 부서
- 연회 : 3개 연회 선정
- 지방 : 6개 지방 선정
- \* 비효율성에 관한 민원의 내용에 주목한다.

### 2. 행정전산화를 단계별로 추진 :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

---

- 1단계 : 행정전산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2년) - 예산 수립
- 2단계 : 행정전산화 추진 실행(3년, 본부 - 연회 - 지방회 등)
- \* 행정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불편함과 시행착오를 줄이려 실무자와 전문가에게 전산화 추진을 평가하여 사업에 반영한다.

### 3. 행정전산화 주요 내용

---

- 1) 사무 행정(결재) 시스템
    - 전자문서의 활성화, 문서 유통 및 결재 시스템
  - 2) 재무관리(직원 급여 포함) 전산화 시스템 구축 : 본부 재산관리 및 예산 집행 결산 등
  - 3) 유지재단 업무 전산화 시스템
  -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 5)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감리회 역사와 기독교 관련 자료, 서적 등)
- \*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4. 행정전산화 점검위원회

---

- 행정전산화를 실행 이후 이행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한다.
- 행정에 필요한 보완과 수정한다.

### 5.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

- 조직이 '회계, 조달, 프로젝트 관리, 위기관리와 규정 준수, 공급망 운영'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하고

- '조직의 재무 및 계획, 예산 책정, 예측 및 보고' 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ERP는 여러 과정을 묶어 각 과정의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여 중복 등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sup>3)</sup>
- 일반 기업만 아닌 비영리조직에서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 1) 사용의 간편성

- 본부와 연회, 지방회의 활동 내용을 일원화할 수 있다.
- 입력한 내용을 실시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요청한 자료를 이메일/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또는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감리회에 맞춘 프로그램

- 본부와 연회, 지방회 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 업무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사용 권한이나 확인 또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3) 여러 업무 상호연결성

- 본부 및 연회, 지방회에 연관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 일원화할 수 있다.
- 현행의 업무 진행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 현행 홈페이지와 링크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장단점

- 직원의 이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 통일된 업무로 인해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계약, 월 사용료).<sup>4)</sup>
- 많은 인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대면 혹은 단체 모임이 아닌 개별적 활동에 따른 조직의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

---

3) <https://www.oracle.com/kr/erp/what-is-erp/>

4) 위 홈페이지에서 월 사용료가 4만 원이라 한다.

[https://www.ecount.com/kr/ecount/product/erp\\_affordable-erp-solution](https://www.ecount.com/kr/ecount/product/erp_affordable-erp-solution)

### III 사람과 역사를 위한 전산화

본부 행정전산화 제언이 나오도록 도움을 주신 제1분과 위원장인 한원식 목사, 위원인 문영배 장로, 최택용 장로, 유경렬 목사, 그리고 안준호 목사에게 감사드린다. 초안을 작성하신 최 장로에게는 더욱 감사드린다.

많은 조직이 ERP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에서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감리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sup>5)</sup> 하지만, 조직은 역사를 반영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조직의 역사를 담아낼 수 없다면, 더딘 길이라도 우리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은 사람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행정의 대상자(감리회원) 관점에서 현실태를 파악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조직 운영의 관점은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관료화라는 딱딱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부나 연회 사무실에서 방문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다. 누적된 불편함은 조직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현 감리회에 속한 모든 조직은 전환점에 놓여 있다. 성장 시대에 필요했던 조직을 그대로 두고서는 쇠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에도 상황에 따라 조직은 차츰 줄어들고 있다. 생존을 위해 연회와 지방회 체계를 통합이나 재편을 고민한다. 총회에서도 본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의 큰 울림이 있었다.

새로운 감리회를 향한 행정전산화는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람은 그것에 불편해한다. 당장 바꾸어도 저항은 미비하게 보인다. 하지만, 감리회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에 담긴 경험치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있다.

행정전산화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감리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감리회의 역사, 사람, 미래를 아우르는 방향성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편함을 고치고자 급하게 서둘기보다 도약 100년을 향하는 새로운 감리회의 필요에 가까운 모습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감리회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100미터 선수가 아닌, 100년을 향한 선수이어야 한다. 도약 100년을 뛰어야 하는 감리회는 당장 시급한 전산화, 예를 들어, 통계표의 전산화 그리고 감리회에 맞는 교인 관리와 교회 재정 프로그램 등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5) [https://www.ecount.com/kr/ecount/product/erp\\_overview](https://www.ecount.com/kr/ecount/product/erp_overview)

# 본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한 제안

## 제 1 부

## 들어가는 말

### 전산화의 이점 및 필요성

- 행정의 과학화 및 능률화, 간소화 : 신속 정확한 자료처리로 인한 업무향상 각종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장부정리 등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감소시킨다.
- 자료정리, 통계, 집계 및 문서작성 등 모든 행정 업무 처리 시간 단축
- 직원 부재시, 퇴사시, 조직 이동시 정보 전달이 용이
-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재정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 실시간 재산 관리 효율 제고 : 비품, 자산, 시설물 등
- 시·공간 제약 없는 행정서비스 : 모바일기기 등 채널 다양화로 서비스 확대
- 교역자 및 평신도의 교육 효율 제고 필요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접근성 향상
-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접근 채널 다양화 : 감리회 및 기독교 자료·서적

## 제 2 부

## 현재 상황 분석

### 감리회 본부 및 연회 본부의 현황 및 문제점

- 대면 결재 등 내부 행정의 전산화 인프라 구축 미흡
- 컴퓨터는 주로 워드 프로세서에 의한 문서작성에 주로 사용됨
- 현 임직원의 행정전산화를 위한 교육 및 마인드 제고 방안이 필요
- \* 일반 공공 행정 및 기업에서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 추진 전략**

- 본부의 전산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지원도 관심을 갖고 추진

**2. 추진체계 및 기간**

- 인사 및 전자결재, 재무행정 등 시스템 도입 운영
- 홈페이지 등 관리 부서의 지정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현행화 추진·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提高)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전산시스템 관리자 배치 :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감소부서 인원으로 대체
- 추진 시간 : 3년

**3. 주요 사업 내용(구체적인 사업 내용)**

- 1) 사무 행정(결재) 시스템 구축(연회 연계) :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 전자문서의 활성화, 문서 유통 및 결재
- 2) 재무관리(직원 급여 포함) 전산화 시스템 구축
- 3) 유지재단 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
-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5)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감리회 역사와 기독교 관련 자료, 서적 등)

**4. 법·제도 정비 및 운영**

- 신규 소요 인력(부서)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으로 기반 조성
- 전산화 소요 비용(필요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와 사전 예산 수립·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 또는 패키지 구입 방법 중 선택 필요

**전산화에 대한 기대효과**

- 전산화에 따른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 전산화에 의한 행정 소요 비용 및 시간 절약, 비품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누수 자금 절약으로 본부 예산의 적절 사용 가능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으로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 향상
-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홍보 강화로 감리회의 대외 위상

## 감리교회 미래세대계획을 위한 제언

- 교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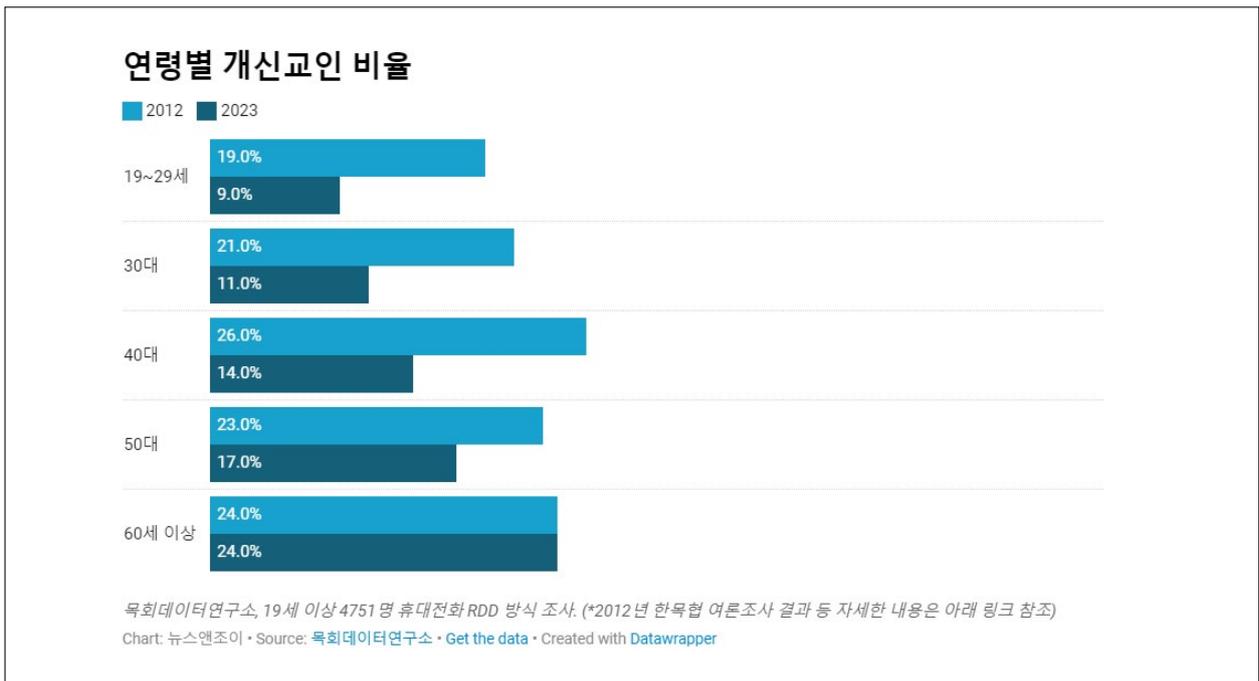
이번 보고서는 “교회와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사회적목회와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요청되는 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상황과 실천적 과제로 연구되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단순히 교인과 교세감소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안마저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벗어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요청된다. 이와함께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복음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안으로의 회개와 함께 밖으로의 개혁과 변화이다.

이를 위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회사회학연구소(조성돈 교수)와 21세기교회연구소(정재영 교수)의 자료를 근거로 관련 연구를 위한 한국교회의 미래지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사역과 교회와 목회자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회적목회 그리고 마을목회와 함께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대안을 통해 미래 감리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기대해보도록 한다.

# I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고찰

최근 한국교회의 분석은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지혜와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교회와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했다면, 다양한 객관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의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담론들은 무엇인가?

##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 연도별 주요 교단 교세 변화

예장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회, 기성 교인 수 합계(2012~2021)

집계년도	합동	통합	감리회	고신	기장	기성
2012	299.4만	281만	155.5만	48.1만	29.7만	54.4만
2013	285.7만	280.8만	148.6만	47.2만	28.9만	55.3만
2014	272.1만	281만	146.8만	46.1만	28.4만	54.6만
2015	270만	278.9만	139.7만	47.2만	26.4만	49만
2016	276.4만	273만	139.4만	47.3만	24만	46.1만
2017	268.8만	262.7만	133.4만	45.2만	23.5만	46.6만
2018	265.6만	255.4만	129.7만	42.3만	23.1만	43.3만
2019	255.6만	250.6만	130.2만	41.2만	22.3만	43만
2020	238.2만	239.2만	124.6만	40.1만	21.5만	39.9만
2021	229.2만	235.8만	120.3만	38.8만	20.8만	39만
10년 전 대비	-70.2만 (-23.4%)	-45.1만 (-16.1%)	-35.1만 (-22.6%)	-9.2만 (-19.2%)	-8.9만 (-30%)	-15.3만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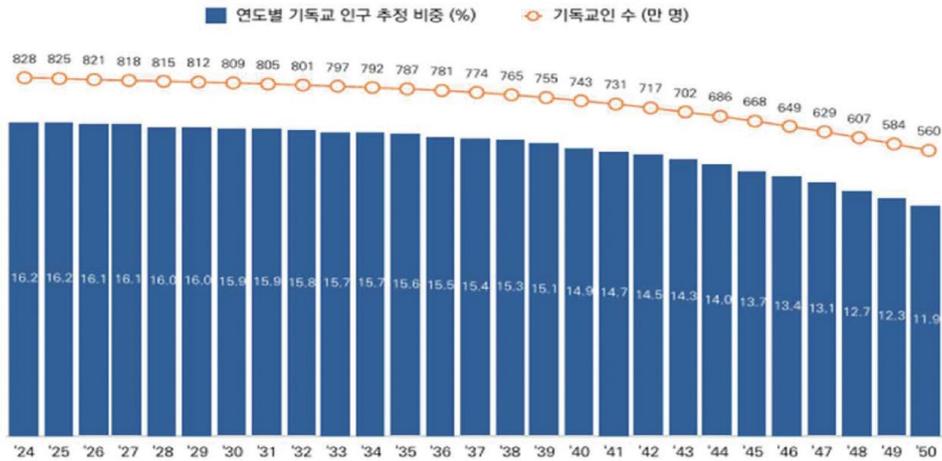
## 개신교 인구 감소



\*자료 출처 : 1998~2017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 [전체 교세 예측] 2050년 한국기독교 인구, 11.9%까지 감소 예상!

[그림] 전체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2024~2050)



## 늘어나는 가나안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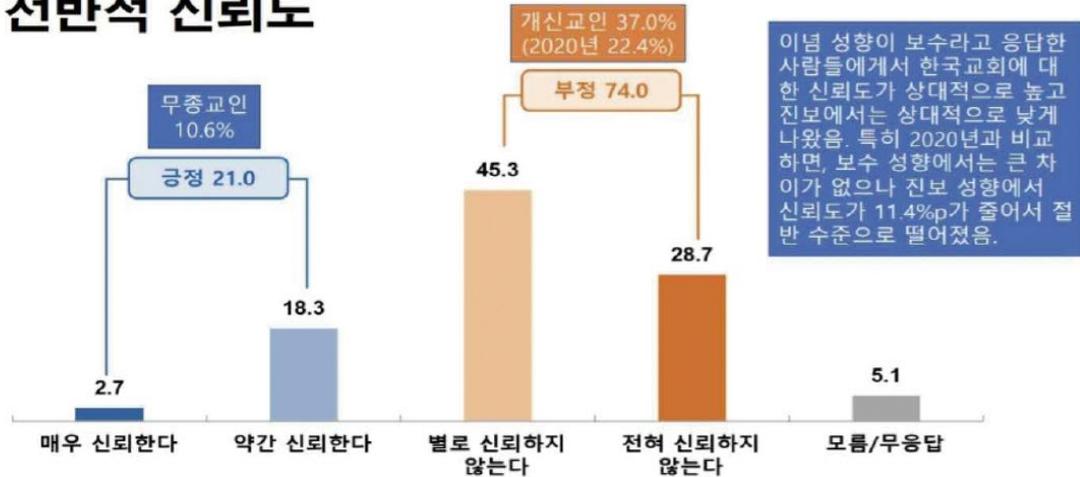
총 인구 100% 기준	
교회출석자	10.6%
가나안성도	4.4%
개신교인 전체	15.0%

2023년 개신교인 구성	
교회출석자	70.7%
가나안성도	29.3%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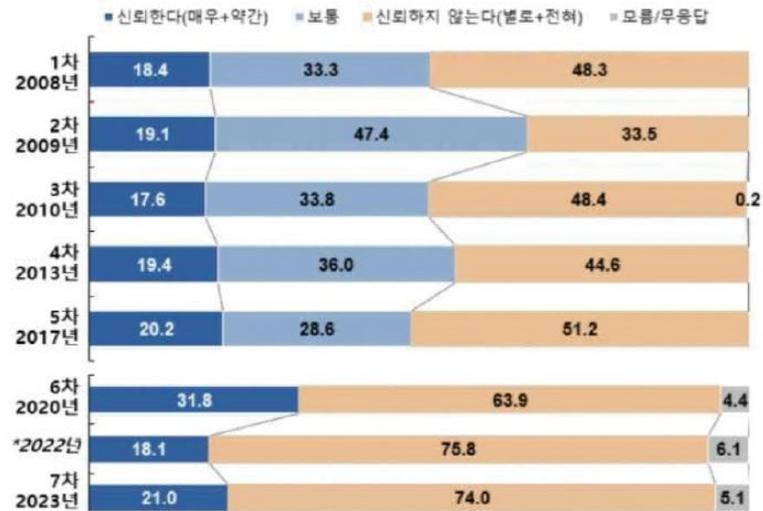
총 인구 5,143만명 기준(추정)	
교회출석자	545만명
가나안성도	226만명
개신교인 전체	771만명

\*자료 출처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 전반적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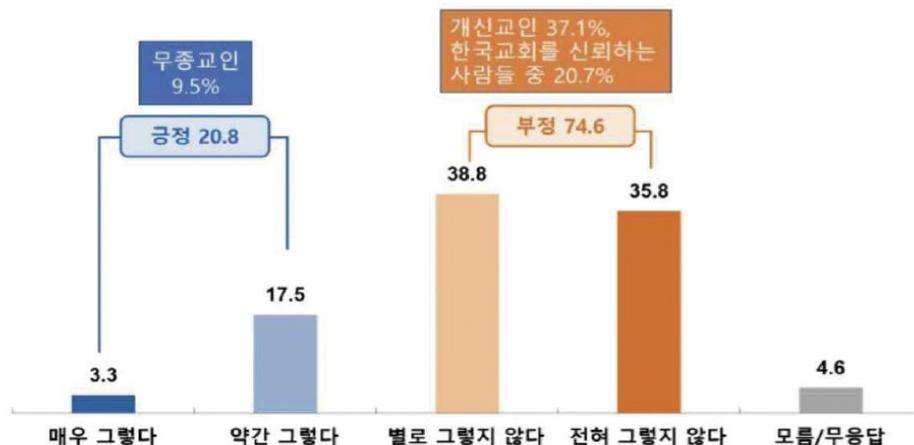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



\*2022년은 사람과성경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2022. 4(만19세 이상 국민 1000명) 결과임

##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한국교회는 10년 동안 200만명의 성도를 잃어버렸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이후 탈교회와 탈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나안 성도의 증가와 고착화, 젊은 세대의 상실과 이로 인한 목회자의 삶의 문제 등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 1)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2)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방향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 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 4)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신학적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 5)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바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한국교회와 교단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른’이 중요하다. 안에서 보는 문제와 밖에서 보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로 안에서의 문제는 합리화하고 밖에서의 문제는 다양한 핑계로 눈을 가리고 있다. 실제로 목회 현장은 이미 많은 부분 무너져 있다. 교회 위기를 넘어 이제는 교회의 존립과 생존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의 삶과 현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인식 및 공공성에 대한 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의 현실은 다양한 교회 문제와 갈등의 모습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이미 목회자와 성도, 교단과 교회, 지역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많은 위기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 희망을 말하려거든 고난을 인정하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소망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걱정하고 사회는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가?”**

## II 사회적 목회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신학의 부재”이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동시에, 세상과 시대에 요청되는 복음을 적용하는 학문이다. 신학은 우리의 신앙고백과 교회전통을 확립하고 세상에 선포한다. 하지만 감리교단은 신학을 잃어버렸다. 아니 버렸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전히 신학을 세속 학문에 대한 경계와 신앙의 색깔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어떠한 준비와 고민도 부재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과 신앙고백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전통아래에서 우리 신학의 지침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며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교리와장정, 제2절 서론)

감리교회는 이러한 신학전통에 따라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성화를 균형있게 자리하여, 한국선교초기부터 지역사회와 교회의 사회선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신학적 방향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사회 속에서 감리교회의 역사와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 감리교회는 어떠한 역할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연합과 세상과의 화해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신학을 버리고 오히려 신학의 무용론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사회적목회<sup>1)</sup>**는 변화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최근 한국교회의 목회에 대한 실천신학적 담론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목회’라는 용어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로부터 한국교회에 제안되었다. ‘사회적목회’를 “교회를 열어서 지역과 소통하고, 사회를 섬기며, 사회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목회”로 정의하되, 그 유형을 네 가지 즉, 소통형목회, 복지형목회, 지역사회형목회, 사회경제형목회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목회’를 ‘목회’(pastoral ministry)의 측면으로 제한하고 있다(‘socialpastoral ministry’). 한국교회의 회복의 차원에서, 이제는 교회 안의 교회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의 회복을 통한 신학적 근거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과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수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현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교회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교회의 사회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미 사회복지와 서비스가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선불리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역할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점점 도시교회는 지역교회의 의미가 상실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

---

1) 노영상 교수는 마을목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헤셀의 ‘사회적목회’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목회’라는 말을 ‘사회적 목회들’과 구별하면서, ‘사회적 목회들’이란 목회의 일과 구별된 교회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별도의 일들을 지칭하며, ‘사회적목회’는 본질적으로 모든 목회가 사회적임을 강조한 개념이다.[노영상 외, “마을목회개론”, 킹덤북스, 2020, 68쪽 참조]

2) 제1회 감리교사회적목회컨퍼런스(2024.9.6.)를 통해 오만중 목사는 일터신학을 근거로 일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세움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현장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현장이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목회로서의 교회론, 목회관으로 전환하고 확장함으로 일터와 일상에 관한 성육신적 사역을 제시한다.

며, 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교회는 쇠퇴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존의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치와 복음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수 있다. 아니 이미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작은 소망이 될 수 있다.

### III 지역공동체운동 - 마을에 소망을 두고 마을을 살리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지역과 지방사역의 대안으로 마을목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장로교 통합측에서는 귀농귀촌센터와 총회농촌선교센터를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의 신학교육과 연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22년 마을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는 한국교회와 지역연구에 실제적인 연구로서 참고해 본다.

[마을목회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 2022년 5월 20일, 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세미나 참조]

- 조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인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의 체계화 방안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교회마다 나름대로 마을 사역을 전개하고 있지만,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 교회마다 각개전투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어렵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서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실패 경험을 답습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목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마을 목회를 하는 사례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본 연구와 발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목회’라는 주제를 통하여 실제적인 지역 사역의 동기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마을목회의 유형별 분석

복지서비스형(61.7) 공간활용형(53.4) 지역참여형(49.8) 생활문화형(44.7) 지역경제형(16.9) 기타(6.4)

: 교회규모가 클수록 복지서비스형 사역을 많이 하고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다양한 사역을 골고루 하고 있음. 특히 지역경제형 사역은 교회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음

## 유형별 추가 의향 활동

---

생활문화형(92.7) 복지서비스형(55.2) 공간활용형(43.1) 지역참여형(33.9) 지역경제형(16.1)

: 생활문화형을 추가할 의향이 많은 것은 단순히 구제/봉사 활동보다는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됨. 목회자 연령대는 40대가 많으며 교인 수 500-1000명, 예산 4억이상, 목회에서 마을목회 비중이 적을수록 많았음.

## 마을목회를 하는 목적

---

하나님 나라를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68.4)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39.3) 더불어사는 마을공동체를 세우기 위해(34.8) 지역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22)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17.9)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17.9) 주민들의 생활환경 소득향상을 위해(3.2)

: 1순위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가 많았고, 50대 이하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세우기 위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예산 2억 이상에서는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마을 목회에서 힘든 것

---

마을목회담당 인력부족(61.7) 마을목회에 소요되는 재정적 어려움(61) 필요한 마을목회 정보와 지식/전문성부족(44.7) 기대했던 마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39.3) 교인들의 무관심과 반대(26.2) 마을주민들의 거부감과 오해(17.9) 같이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15.7) 마을사람들의 비협조(16.3) 동료목회자의 이해부족(12.8)

: 1순위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재정의 부족이 가장 컸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가 더 컸음. 교인 수 500-1000명은 '교인들의 무관심과 반대'가 가장 많았음. 공간활용형과 생활문화형은 재정문제가, 복지서비스형과 공간활용형은 인력문제가 가장 컸고, 지역참여형은 여러 가지 골고루 응답이 나왔음.

## 목회로서 마을목회에 대한 견해

---

: 나이가 많을수록, 감리교, 마을목회를 하는 경우, 마을목회 비중 크고 만족도 높을수록, 마을공동체가 목표인 경우에 '마을 목회가 목회 그 자체'라는 응답이 많음

-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마을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유형별로는 복지서비스형이 가장 많음. 교회 규모가 클수록 마을목회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서비스형의 비중이 큰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지역경제형이 마을목회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최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회의 봉사활동은 전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는 의견이 많았고, 교회의 사회봉사에서 바람직한 자세도 전도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따라서 전략적으로 마을목회에서 직접 전도를 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음. 이번 조사에서 마을목회의 목표가 마을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마을 목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교회 규모별 마을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

---

- 소형교회 : 마을 활동가 역할, 소형 교회는 작은 규모의 지역밀착형 교회들로서 마을 활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함
  - 중형교회 : 소형교회의 역할과 함께 교동 협의회나 지역교회 협의회의 촉매자 역할
  - 대형교회 : 소형, 중형교회의 역할 과 함께 중간지원조직 역할
-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지역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와 사회적 의제를 지원하는 조직. 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담당
-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도 전략팀이나 소그룹 위원회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

최근 지역의 변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운동의 하나로 마을목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과 공생하는 관계적 차원을 벗어나 지역이 사는 길이 곧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공동영역에 대한 고민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교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단과 교회의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라는 의미에서 마을목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 '지역공동체운동 또는 마을공동체운동' 유럽교회의 '디아코니아선교'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의 존재 양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제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행위가 교회의 위기 앞에서 그 방향성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목회자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역을 섬기며 한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단과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 IV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대안<sup>3)</sup>

사회적 목회와 연결되어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대안으로서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는 현상으로 일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목회의 모델과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직업소명으로의 이중직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2023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소형교회(교인 49명 이하) 목회자 가운데 31.7%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단적으로는 감리교 목회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감리교회의 경우 소형교회가 보편화 되고 있으며, 농촌 및 지방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는 216만원으로, 월150만원 미만을 받는 목회자가 29.4%, 151-250만원이 48.2%로 사례비 250만원 이하가 77.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과 대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중직 목회가 확산되면서, 목회를 위한 직업, 직업을 통한 목회, 겸직목회, 자비량목회, 일터사역 등 다양한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다. 감리교회에서는 ‘사회 선교사’라는 논의가 발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중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중직 목회에 대한 연구나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의 정체성과 영성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목회와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단순히 돈을 버는 생계형 직업을 넘어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과 사회선교, 전문인으로서의 분야와 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2년부터 목회자 이중직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영업[카페, 출판, 중고차 등], 기술직[에어컨, 엘리베이터, 용접 등], 협동조합 및 복지사업, NGO 및 지방행정 및 전문직, 배달 및 대리운전 등 많은 분야에서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점점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다. 교단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와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공공선과 사회선교의 차원에서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 1)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조사와 지원체계제공

;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는 현실에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명과 목회현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목회자의 소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개발과 훈련

3) 목회자이중직 논문으로 박대성 목사(제천동지방회 송학교회) [목회자이중직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이해]참조.

; 일터신학과 같은 다양한 직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와 연결된 직업을 개발하고 훈련한다. 예를 들어 도시교회나 목회자들은 교회와 연결된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문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 및 지역은 각 연회가 거점이 되어 사회적목회 지원을 위한 공간과 소통의 창구를 할 수 있다.

### 3) 신학과 목회적 소양을 겸비한 교육과 직업네트워크

; 신학교에서부터 중견 목회자 은퇴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직업에 대한 신학적 준비와 함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4) 감리교회와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사회적 목회와 이종직에 대한 정체성 확립

; 한국교회의 미래와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목회모델을 개발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V 교회 리빌딩(Rebuilding)

“흐름을 읽는 교회가 살아남는다”(한국교회트렌드2024)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과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이고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 앞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이상 개교회의 성장이나 만연된 축복의 복음은 한 영혼도 지역도 변화시킬 어떠한 영적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아니 더이상 미룬다면 한국교회, 우리의 감리교회는 세상에서는 어느 이단사이비와 다르지 않은 그들만의 종파로 전락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논하는 종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위기의 현실에 종교와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 사회와 지역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지역공동체운동과 목회자 이종직의 주제는 조금은 근본적인 인식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이유는 바른 원인의 분석 속에서 바른 대안과 실천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실천을 위한 몇 가지의 고민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시 선교적교회(Re-missional Church)<sup>4)</sup>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발표된 [한국교회트렌드 2024]는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현상 분석과 함께 미래 목회의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교적교회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역과의 연대에서 중심되는 교회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의 선교적 교회 모델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교적 교회론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목회 철학을 정립하고 마을과 지역 사회를 품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사역은 카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문화 행사, 교육, 요양원, 상담센터, 쉼터,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회나 사역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시도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목회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마을조사, 행정 등 지역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단적으로는 목회자 양성 단계부터 교회설립과정, 그리고 교단의 정책 및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 [Community Building/지역공동체세우기교육연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교회거버넌스<sup>5)</sup> : 현대사회와 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는 개인의 영혼의 문제와 함께 지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 교회제도와 형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위계에 의한 조직이 아닌 공동체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단과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중심이 아니라 지역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고 지역주민의 아픔의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목회자의 아픔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커지고 연결되면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 되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의 아픔과 위로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지역 교회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거버넌스를 세울 수 있다. 교단과 지방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생명문제, 다문화 등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공간 및 거점기반조성, 전문가양성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과 사회적 목회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4) 한 예로, 결성감리교회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목회를 시도하고 2000명의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평화기도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기부봉사단, 공유냉장고, 다양한 섬김 사역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목회를 실현하고 있다.

5) 안양감리교회(임용택 목사/라이프호프 이사장)의 경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한국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자살예방전문단체인 라이프호프와 함께 지역사회 자살예방캠페인, 지도자교육, 자살예방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거버넌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다시목회로(Re-ministry)<sup>6)</sup>** : 이러한 모든 사역에는 준비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60세가 되신 선배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5년만 먼저 시작했어도 더 좋았을 것을!”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십년을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야간에 기술학교를 입학하여 국비를 지원받으며 기술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후배에게 권면을 하셨던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와 교단의 목회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제는 주위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이중직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부분 교회운영의 어려움으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목회자로서의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진 목회자들, 이러한 목회자를 낙인찍는 성도들과 주의의 시선들, 무관심한 교단과 교단정치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목회자리! 는 수련목회자, 목사안수 후 중대형교회 부목사, 이후 도시 및 지방개척, 잘 풀리는 경우 교회 청빙의 무의미한 순환고리마저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고자 결단한 목회자들에게 교단으로서 선배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의 목회 자리를 넘어서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넘겨줄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한 한 걸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 고민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

## VI 마치며

잠시나마 감리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였기에 본 의도와는 다를 수 있음을 느끼며 작은 소회(所懷)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감리교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다. 감리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현장목회와 사회적목회로서 NGO사역,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목회사회학연구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목회의 고민과 함께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는 확신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함께 하는 많은 교회와 목회의 동역자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있다.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교권과 왜곡들로 희망보다는 포기과 단절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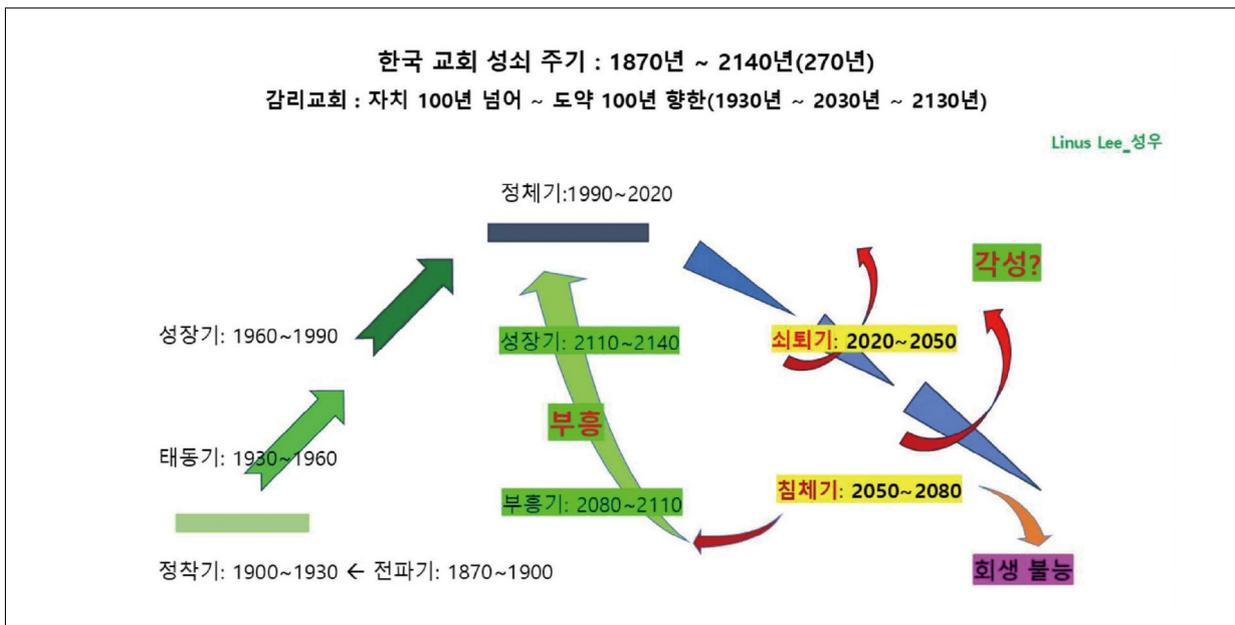
6) 소형교회이지만 목회자의 철학과 준비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목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름다운교회(김종현 목사, 청주 남지방회)는 아름다운도서관과 지역자살예방과 생명윤리위원회활동, 지역섬김사역(탈북민, 조손가정, 다문화사역)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라이프호프 생명사역과 유가족들이 함께 설립한 도림감리교회(장진원 목사)는 자살예방전문가로서 생명을 통한 목회로 성장하고 있다.

“흐름을 읽은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사회학적 연구의 판단이 깔려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왔다. 그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는가는 우리의 무거운 책임이고 사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대라는 주제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본질적인 교회론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각 교단, 연회, 지방이 함께 새롭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목회자들 사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유행처럼 번졌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목회상담 등 다양한 전문분야와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사역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남이 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신학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교회와 지역과의 연대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아무리 건물과 의지가 있어도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육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지역에 투자되는 민간 및 공공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목회 전반에 대한 교육과 커리큘럼을 목회자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과 연대하기 위한 마을목회, 커뮤니티 빌딩,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거버넌스 등은 이미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중심의 지역사역의 의미는 또 다른 시간과 예산만을 투자할 뿐이다.

이제는 교단과 교회가 전문적인 인력과 사역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감리교회의 장점은 조직과 일치성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각 연회, 지방, 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간과 정보 등의 네트워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수준높은 목회자들을 지역과 지방에서 지원하고 세울 수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걸음만 걸어가면 너무나 다른 가능성이 보이며 요청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리빌딩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사회문제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세상과의 다른 가치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 지역을 보고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한국감리교회 자치 100주년을 위한 제언

- One Nation, One Methodist -<sup>1)</sup>



제22대 총선은 끝났다. 총선을 치르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제7공화국과 대통령 4년 연임제이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1987년 체제(6공화국) 이후,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의 피로도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고민에서 개혁을 이야기한다. 선거제도만이 아닌, 정치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 더 넓게 말하면, 국가 정체성을 '성장'에서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의사 증원도 누

1) 인터넷 신문 <뉴스웬> 2024년 6월 9일 기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https://www.knewsm.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

구를 위한 변화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막스베버가 말했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국가체제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이 유지되고 지속하는 기준의 효율성을 고민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여태 가져왔던 기준에서 벗어나, 더하고 뺀 달라진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라 여겨진다.

국가만 아닌 감리회도 그런 전환기에 놓여 있다. 2030년은 감리회가 자치 100년을 마감하고 다음 100년-나는 그것을 ‘도약’이라 부르려 한다-을 향하는 원 년이다. 감리회는 자치 100년을 어떻게 보냈고, 도약 100년은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가?

## 왜 자치를 선포했을까?

『교리와 장정』 제1편 역사와 교리 부록에는 기독교조선감리회 시작을 공포하는 내용이 있다. 웰치 감독은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고,’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게,’ 그리고 ‘한국적 교회가 되는’ 선포로 설명한다. 기독교회와 감리교회, 한국교회라는 세 축에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체로서 감리회는 가톨릭이나 장로교와는 다르다. 가톨릭은 국가 범위를 벗어나 교황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장로교는 국가마다 여러 개가 편재하는 성격을 갖는다. 감리회는 한 국가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조직의 특색이다. 한국의 감리교가 그런 예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30년 자치 선포는 미국의 북과 남감리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에 의해 관리되던 두 개의 감리회는 하나로 ‘기독교조선감리회’가 되었다. 웰치는 선언문에서 기독교, 감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근거를 덧붙였나, 독립 국가도 아닌 상태에서 독립된 감리회가 되겠다는 선포이었다.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1968년 온양에서 개최된 선교협의회에서 온전한 자치가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내 생각에 일조한다. 그렇다면, 1930년 자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것에 의미가 없다면 웰치와 함께 자치를 선포한 우리 신앙의 선배 모두는 헛발질했었을 뿐이다.

그런 의문을 더하다 보면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은 ‘왜 자치 선포이었는데?’이다. 선포에 참여했던 모든 이가 상상했던 감리회는 어떤 모양인가? 그것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상상’일 테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그것을 다음으로 정의한다(『근대의 사회적 상상』 2010:43).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과 이미지이다.

나는 자치를 선포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면에 놓인 심층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묻는다. 그것에 관

한 대답을 찾는다면, 비록 정답이 아닐지라도, 자치 100년 동안 감리회의 발자취를 이해하는 터가 된다. 자료와 다른 무엇이 있다면 자치 선포에 참여했던 그들의 사회적 상상을 찾는 일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930년 감리회 자치를 선포한 이들은 국가의 독립과 함께 자주, 자치, 자립을 이룬 감리회를 상상했다.

## 5년 남은 자치 100년

오늘 우리 감리교인은 감리회 시작이 1930년이었음을 알고 있을까? 좀 더 솔직하게 묻는다면, 1968년 온양에서 온전한 자치가 되었다는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우리는 감리회 역사에 관심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감리회의 정체성을 아예 무시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감리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는 정체성 자료로 ‘감리회 로고,’ ‘신학지침,’ ‘신앙고백,’ ‘사회신경,’ ‘감리교회가’ 등을 소개한다. 그것들에는 1930년 자치 선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자치 선포로 생겨난 게 신앙고백과 사회신경인데도 그렇다. 「역사와 교리」를 소책자로 만들어 감리교인 모두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이제 이해된다. 역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감리회 자화상이다.

감리회는 1930년 자치 선포를 잊어버린 채 잘(?) 지내고 있다. 좀 지저분하게 말하면, ‘아비 없는 자식’이 되어도 잘 산다. 이런저런 말들-감리회 공교회성 회복은 그런 예가 될 듯하다-로 에둘러 변명하더라도 각자도생 현실에 교회 성장만 하면 장땡인데, “역사가 뭐, 정체성이 뭐 중하다고?”

교회가 역사에 관심을 가질 시기는 성장이 아닌 정체나 쇠퇴 때이다. 역사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속내로 시작한다. 역사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맑은 의도가 없더라도, 찾으려는 시도이니 다행이다. 뜬금 없이 하디(Robert A. Hardie)가 나온 배경이다.

감리회만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다. 제너럴서먼호나 토마스 순교를 운운하는 배경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결국, 역사를 기억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역사 기억하기가 아니더라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역사를 챙기니 다행이다.

## 우리 종교 만들기

나는 지난 ‘자치 100년’을 기독교라는 낡은 종교를 우리 종교로 만든 기간이라 여긴다.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독교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기독교 건물이 없는 곳은 없다. 도시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섬에도 있다.

감리회는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를 우리 종교 만드는 한 축을 담당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체계들에 감리회가 놓은 다리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지난 10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힘이 들어간 어깨는 의기양양했었다. 단단했던 어깨는 언젠가부터 굳어지면서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만성화된 통증은 무디어질 뿐이었다.

교회 세우기에 침병이었던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들의 열정은 골칫거리가 되어간다. 건물은 폐쇄 혹은 통합으로 처리하면 되나, 교회는 무엇이고 사역은 무엇인지 정체성에는 혼란만 가득하다. 화려했던 해외 건설 선교는 바닥이다. 내부 결속으로 시작한 단기선교는 한국교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대학원 학력을 요구하는 목사 자격증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신학 학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 누구도 문제라 여기지 않고 당연시한다. 특정 기득권의 생존을 위해 존치한다는 학부생의 하소연은 옳아 보인다. 시대에 뒤쳐져 신학생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체제로 그들의 기득권은 지탱된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지우기에 한참 열을 내고 있다.

그런 대책으로 통합을 외치고 있다. 연회를 통합하자, 지방을 통합하자, 신학대학을 통합하자. 무엇을 향한 통합이고 주체는 누구며, 어떤 방향인지 모르나 통합이 살길인 듯 보인다. 그게 개혁인지 생존의 버팀목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도조차도 차츰 퇴색한다.

## 우리 감리회 다지기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종교 만들기'는 정말 최고이었다. 감리회는 자치 100년을 향해 달려왔다. 성공했다. 근데, 그런데, 영원하리라 여겼던 자치 100년 동안 만들어진 감리회는 삐걱댄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잘 들린다. 가랑비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2년마다 감독·감리사, 4년마다 감독회장 선거는 지난 100년의 감리회를 허물고 있다. 여태 가져왔던 감리회 정체성의 권위도 하나씩 하나씩 힘이 빠지고 있다. 감리회가 앞으로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멀리 가지 않겠다는 내 생각이 잘못이길 바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각자도생인데 역사를 생각하고, 도약 100년을 생각하는 게 사치스럽다.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도약 100년을 생각해! 미친놈. 그러게, 내가 미쳤나 보다.' 아버 없는 자식으로 살아도 시간은 흐른다. 그렇게 먹거리에 종속되어 살아도 된다. 언제까지?

내가 그려보는 한국교회 성쇠 주기에서 교회는 현재 쇠퇴기(2020~2050년)를 지나 앞으로 침체기(2050~2080년)를 거쳐야 한다. 그런 후, 교회가 소멸(전체 인구 2% 정도)할지 아니면 부흥을 맞이할지를 알 수 없다. 쇠퇴기와 침체기 없는 부흥기는 있을 수 없다.

목회자 이증직은 당연한 일이고 총회의 결정은 참 잘했다. 쇠퇴기에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은 목회와 일을 함께 시작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이증직은

목회의 정체성에 큰 힘을 부여한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라는 비유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

쇠퇴기와 침체기에서 각성(awaking movement)은 목회자의 순수성과 목회의 정체성에서 생겨난다. 각성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 선배가 소나무를 뽑던 방법으로 그것을 해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정의하지 않으나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순수함을 배워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신앙을 다양하게 지켜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몫이다.

## 새로운 상상력은 없다?

이제 남은 5년은 우리가 감리회를 향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다음 세대가 펼칠 수 있게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늙은이가 꿈꿔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행2:17). 우리가 나서서 당연히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내가 말하는 상상력이 아니다.

상상력은 누군가의 '믿음씨'에서 나온다. 우리 신앙 선배가 가졌던 믿음씨에서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자치 100년을 거쳤다. 도약 100년 또한 그것에 근거해서 나가야 한다. 과거 신앙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신앙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된다.

그러니 나대지 말고 조용히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지난 100년의 감리회를 다시 꼼꼼히 보아야 한다. 주장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상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아주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피운 믿음씨에서 나온 상상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토대에서 시작하는 다음 100년은 우리 감리회를 '다지고 내디디는' **도약 100년**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 감리회 다지기**'를 상상하며 도약 100년을 맞이하자. 실태조사하고, 제도 정비나 신설 등으로 다지기에 애쓰다 보면, 도약하는 감리회 모양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 마음가짐은 달라야 한다. 과거보다 못해진다고 조바심 내며 마음이 좁아지거나 작아지지 말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정말 소란스럽다. 지금 상태나 모습으로 답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겠는가? 그런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감리회는 집단에 소속함으로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위기일수록 다각화된 정체성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서로를 믿으며 살아왔다. 비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게 감리회 정체성이다. 지금의 모습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우리 정체성에 자신감을 품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감리회는 **공존과 균형의 정체성**으로 도약 100년을 맞이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누구였고,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는지를 곱씹어 보자. 공존과 균형의 정체성으로 감리회를 다시 혹은 새롭게 세우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하자. 무릎부터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으로 시작하자.

## 재개발지역내 개체교회 위기에 대한 제언

-서울연회 은평동지방회 은현교회 사례를 통해 보는 대책-

###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재개발지역 내 위치한 개체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실제 은현교회에서 실무를 담당할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다솔CM의 자료와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게 되는 경우 재개발조합측과 관련 지자체와의 관계 및 문제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현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재개발이라는 상황이 생기자마자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대책위원회 조직이다.

### 1. 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의 취지

개발의 미명 아래 힘겹게 개척된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정부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정책에 따라 전국 28개 지역, 1330개 구역에 세워진 1만여개의 교회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들 교회 대부분은 현실에 맞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여기에도 교인 70% 이상이 흩어져 중형교회들은 작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보상금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또한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상가교회들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폐쇄된 교회도 있다. 이렇게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연합단체와 160여개의 교단은 그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을 비롯한 대신 측 등의 일부 교단이 이들 교

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통합측도 지난 7일 이들 교회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들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일부 교단의 이와 같은 대책 강구는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 교회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또한 이들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편 이들 지역의 교회들은 자구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교회 지키기에 나섰다.

## 2. 개발 지역에 영향을 받는 교회들의 형편

재개발 및 각종 개발(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교인들이 먼 곳으로 이주해, 전체교인의 30%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90%이상의 교인이 떠난 경우도 있다. 때문에 각종 개발 지역의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있으며,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교회의 부대시설인 종탑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토지나,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상가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인근 상가건물들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해 임대료를 내야하는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조합으로부터 종교 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교인의 40%이상 이탈, 많은 건축비를 들여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종교부지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채무 등의 갖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토지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연합회 및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시급

이렇게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한국교회는 교회 이기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이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지역 주변의 교회들은 환영하고 있다.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갈 경우, 떨어져 나온 교인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지역 11개 교회는, 자구책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 교단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향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요구가 있는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기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들은 중대형교회의 입김 때문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이 지난 2008년도 가을 총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며,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총회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지난 7일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 내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4. 종교시설 보상 기준의 사각지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비(감정평가 기준 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교회 대부분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의 교회는 정부의 고시가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교회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면목동에 위치한 생명중앙교회와 조합 간의 분쟁은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설립된 교회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교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조합측은, 교회에 불이익을 주면서 마찰을 빚었다. 심지어 조합 측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교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순교의 각오로 교회의 입장을 조합 측에 관철시켰다. 하지만 교회가 싸움이나 하는 단체로 지역주민에게 비쳐져,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책임인 이길용 목사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교회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 및 재건축, 뉴타운 지역의 교회들은 개발이후, 황금빛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은 크다. 길음 뉴타운 7,8, 9 구역에 속했던 10개 교회중 성은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다. 4개 교회는 재개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인근 상가를 빌려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이들 교회는 교인 60%이상이 나간 상태이다. 상가 교회 5개중 1개 교회는 이미 해체되었으며, 4개 교회는 인근 상가를 임대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측으로부터 현실적인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다. 수백만원의 보상비를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문제는 법규정에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기에 조합과 교회가 마찰이 더욱 심해 지고 있다.

#### 5.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이렇게 재건축 및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한국교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자구책으로 이들 교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존립 이전에 교인과 목회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연합기관 및 교단들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든 에너지를 교단 내 분쟁에 소모하고 있다.

- ① 무료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 소모임 • 세미나 • 방문PT • 유선상담
- ② 성전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CM) 제도를 제시한다.
- ③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보상 전문가를 통해 보상 전략을 협조 받는다.

## 6.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 각종 문서

- 부동산 수용 보상 협의 제안서 : 교회가 수용당하는 전제 조건을 강한 의지 표현으로 제출함
- 성전건축 사업계획서 : 보상의 목표는 성전건축이기에 건축계획을 통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함
- 신축비용 예산내역서 :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신축비용을 조합에 제출함
- 신축 면적 증가된 사유 : 이전하면 기존교회 면적보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건축법 근거 제출
- 손실 보상금 산출 내역서 : 토지 보상과 건물보상을 구분하여 법적 근거로 산출함
  - ① 토지보상 : 1:1대토 (제공한 토지 보상은 별도) -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 ② 이전에 따른 신축보상 - 토지보상법 제 75조
  - ③ 기회손실비 - 도시정비법 제 62조, 토지보상법 제 79조
  - ④ 이주대책 - 토지보상법 제 78조

## 7. 사업진행에 따른 대응 일정

- 1) 지정고시 - 토지 지정 협의 (면적, 위치)
- 2) 공람 - 토지 및 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 3) 추진 위원회 - 대화 협의 (문서 불가능)
- 4) 조합 설립 - 교회 계획을 통보함
- 5) 사업시행인가 - 대토 확정 및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
- 6) 분양신청 - 상황에 따른 변동
- 7) 관리처분계획인가 - 보상협의 종결
- 8) 재결신청 - 이의신청 (보상협의 미결시)
- 9) 건물인도 소송 - 범무법인 선임 대응 (보상협의 미결시)

## 8. 개발에 따른 각종 법규

- 1)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적용
-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률 (도시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적용
- 3) 도시개발법 (도발법) → 도시개발 (공공, 민영, 공동) 적용
- 4) 서울시 2009년도 종교시설 처리 방안(규정)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적용

## 마무리 하는 말

---

시대의 변화로 재개발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어 앞에 열거한 내용은 대처의 기본값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적 특성과 조합에 따라 교회를 대처하는 방법이 제각각임을 인지하시고, 처음 재개발 지역이 지정될 때 구청과 조합(추진위), 그리고 교회,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교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만약, 조합(추진위)이 합의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것을 서류화하는데 주력하여 반드시 문서화가 되어야만 이후 교회건축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서류는 법원에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시 교회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자료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중소형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본부 사무국에 재개발 특별지원팀을 개설하여 재개발 지정지역에 속해있는 교회가 원할 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 존 웨슬리의 영성

### 서론

#### 1. 웨슬리의 영성은 근현대적

웨슬리가 살고 목회하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가깝다. 무엇보다 이점이 그의 영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된다. 웨슬리에 비하면, 루터,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세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삶의 정황 면에서 우리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웨슬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면서 목회하셨다. 그분은 18세기를 온전하게 살다간 인물로 이미 계몽주의와 같은 초기 근대의 시대정신을 접하고 그런 속에서 신앙의 문제를 씨름한 분이다. 이 점은 오늘날 정황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다.

우선 웨슬리의 시대를 살펴보자.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8세기를 거의 온전히 사셨다. 서구의 18세기는 여러모로 중요한 변화의 시대였다. 그 변화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낸 변화였다. 그 시대는 산업 혁명의 시대였다. 통상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산업 혁명의 시기를 1750년에서 1850년으로 본다. 산업 혁명의 중요한 전기(轉期)가 된 사건으로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 기관 완성을 꼽는데, 이 일은 1769년에 있었다. 웨슬리는 산업 사회의 시작에 해당하는 시기를 살았으며, 그러한 혁명적 변화가 몰고 온 사회적 변천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 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또한 웨슬리는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영국의 경우,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공포 이후, 의회가 생겨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였다. 웨슬리는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화된 시대에 활동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루터, 칼뱅과는 달리 민주주의적인 사회와 그 의사 결정방식을 경험한 시대에 살면서, 개인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점 역시, 오늘날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웨슬리의 영성과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한다. 오늘날의 사회 정치 제도는 그러한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웨슬리는 생애 동안 미국의 독립을 목도하였으며(1776), 그의 생애 말년에는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지켜보았다(1789-99).

다시 말해, 웨슬리는 근대 초기를 살았으며, 오늘날 우리들, 즉 현대 인류의 삶의 대략을 구획하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모색하는 목회를 했다. 일례로, 웨슬리는 도시 노동자 계층의 탄생,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루틴, 즉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 형성되던 시기를 살면서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신앙 윤리와 올바른 영성 생활을 세워가는 목회를 하였다.

지성사적 측면에서 보면, 웨슬리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학주의 즉 실험, 실증, 증명이 진리의 정당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되는 시대, 그리고 이성과 합리주의의 시대를 살면서, 그런 시대 풍조들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 만유인력과 운동의 법칙을 정리한 아이작 뉴턴(1642 - 1726), 근대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순수 이성 비판』을 저술한 임마누엘 칸트(I. Kant, 1724-1804)등과 비교해 보면, 웨슬리의 시대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현대라는 패터다임의 초기에 해당한다는 점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과학주의와 이성의 도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시 노동자 계층의 출현이라는 변화 속에서 일어난 신앙 운동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이다. 웨슬리는 바로 이 신앙 운동의 강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복음주의 운동은 오늘날까지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한 전통이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대다수도 이러한 복음주의 영성 전통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신앙운동을 이끈 웨슬리의 영성은 그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근현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특히 오늘의 제자됨을 정립하는 데에, 즉 오늘날 우리들의 영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다.<sup>1)</sup>

## 2. 웨슬리의 영성

영성이란 말은 ‘spirituality’(*spiritualitas*[라틴], *spiritualité*[불])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 말은 ‘영적’(*spiritual*, *pneumatikos*)라는 신약성경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여기서 ‘영적’이란 ‘성령의 영향력에

1)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제자도의 실경험”이라고 정의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자됨의 길’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A. Holder, “Introduction,”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Spiritualit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5), 1.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sup>2)</sup> 즉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란 "성령에 의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성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영향력"이며, '영성학'은 그 영향력에 따라 성화되는 길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sup>3)</sup> 따라서, 웨슬리의 영성은 성령에 의해 성화되는 삶의 길에 관한 그의 가르침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웨슬리 영성의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웨슬리의 영성에 관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웨슬리 학자 중 한 사람인 알버트 아우틀러의 말을 들어보자.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성인들' 중 한 사람도 아니며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은둔자와 같은 그런 종교인도 아니다. 탈아와 황홀경의 경험을 말하는 그런 영성도 아니다. 웨슬리는 경건함과 독실함은 그런 영적 거장들과 그것과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영성이 성령 안에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최초의 회개에서부터 최후의 영광까지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웨슬리의 영적 이상은 분명 전형적인 영성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sup>4)</sup>

### A. 이성과 정서의 조화

이러한 웨슬리 영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영성이 이성과 정서의 조화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웨슬리는 높은 수준의 이성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흥 [즉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충동들]에 이끌려 행동하는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나는 성서에 그리고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느끼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관찰한다'."<sup>5)</sup> 하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에게 한 평생 동안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관심사였다.<sup>6)</sup> 이와 같이 웨슬리의 영성은 이러한 이성과 열정을 높은 수준에서 조화시키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웨슬리는 이성과 정서의 종합이 올바른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함을 확신하였다. 그는 성서와 전통에 대한 이성적 추구를 단단히 붙잡으면서도 그 위에 열정적 체험적 삶을 더함으로써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한 평생 관심을 두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기도서와 성서를 통해 매일 경건 생활을 했으며, 청년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Holy Club을 결성해서 초대로부터의 영적 전통을 연구하여 영적 규칙들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다.<sup>7)</sup> 그가 쓴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

---

2)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신학," 신학과 세계 제99호 (2020, 12): 325.

3) 사이몬 찬, 『영성신학』 김병오 역 (서울: IVP, 2002), 310. \*이런 의미에서 영성의 반대말은 물질(materiality)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혹은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의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Albert Outler, "Preface," *John and Charles Wesley: Selected Writings and Hymns*, ed. by Frank Whaling,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Mahwah: Paulist Press, 1981), xiii.

5) Ibid.

6) Ibid.

7) Ibid.

에는 이를 뒷받침한다. 웨슬리는 성서와 경건 서적을 읽을 때 “그대가 읽은 것에 상응하는 감흥을 일깨도록 하십시오. 그저 지식만 더할 뿐 감동도 열정도 없는 독서는 무익합니다...”라고 강조한다.<sup>8)</sup>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의 강조로 인해 그는 reasonable enthusiast (이성적 열광주의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sup>9)</sup>

이러한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은 이성과 정서의 종합 뿐 아니라 공적 예배와 개인 경건의 조화, 은혜와 그에 대한 응답의 조화 강조 등으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웨슬리 영성은 “은사주의적이면서도 수덕적인” 복음주의 영성의 전형으로,<sup>10)</sup> 감리교 부흥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 B. 영성학의 정의

이러한 웨슬리의 영성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조던 오만(Jordan Aumann)의 영성신학의 정의를 도입하여 그 틀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오만은 영성학을 신학의 한 분야로 정의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영성신학’으로 명명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성 신학은 신적 계시의 진리와 각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나타내며, 영혼이 영적 생활을 시작해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의 진보 과정을 설명하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sup>11)</sup>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영성 신학은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본질, 은혜의 삶과 주입된 덕성의 작동과 성령의 은사들, 혹은...구원과 성화의 사역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한다.

둘째, 그것은 초자연적인 삶이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예를 들면, 죄와 유혹을 다루는 방법과 영성 삶을 진보시키는 다양한 영성 훈련을 함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그것은 영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완전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union), 신성화(deification), 영화(glorification)로 다양하게 불리

---

8) John Wesley, “Advice on Spiritual Reading, Part of the Preface to John Wesley’s Abridgement of Thomas Á Kempis’ Treatise of the Imitation of Christ,” *John and Charles Wesley*, ed. by Frank Whaling,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Mahwah: Paulist Press, 1981), 89.

9) 웨슬리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Henry D. Rack, *Reasonable Enthusiast: John Wesley and the Rise of Methodism* (Cambridgeshire: Epworth Press: 2014)에서 온 것이다.

10) 찬, 『영성신학』, 52.

11) Ibid, 21.

는 목표를 가진 계획적인 과정이다.... 영성 신학은 성경적인 자료와 경험적인 자료들을 사용해서, 영적 성장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정화(purgation), 조명(illumination), 연합(union)이라는 ‘세 가지 방법’일 것이다....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즉 칭의, 성화, 영화의 순서로 진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2)</sup>

이러한 오만의 영성신학 정의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웨슬리의 영성학, 즉 웨슬리의 성령의 성화시키는 영향력에 관한 가르침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웨슬리가 초자연적인 삶에 관하여 무엇을 말했는가?’

둘째, (위의 오만의 진술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웨슬리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영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덕목들과 지침들에 관한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후 본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다.

## 본론

### 1.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히11:3)

첫 번째로 ‘웨슬리가 초자연적인 삶에 관하여 무엇을 말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웨슬리는 히브리서 11:1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구분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를 알아보게 되는 변화인 ‘새로운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sup>13)</sup>

웨슬리는 오감으로 인식하는 자연적 세계에 대한 인식만을 경험으로 간주하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근대 초기의 실험 실증주의에 대한 웨슬리의 우려는 이러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영적인 삶에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자연 세계가 존재하도록 하는 초자연적 실재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믿음을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12) Ibid, 22.

13) John Wesley,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in The Appeals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Certain Related Open Letters*, ed Gerald Cragg,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I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6-7.

되는 일'로 정의하면서(히11:3), “보이는 세계”와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시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인식론적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강조한다.<sup>14)</sup>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보자면, 초자연적 현실, 즉 신적 현실을 보게 되는 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을 통과하여 이 세상에 나오는 육신적 탄생 위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물주머니 속에 있다가 그것이 터지면서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늘의 능력, 즉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진면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위에 것을 바라보는 사람, 지상적 수평적으로만 세상을 보던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신약성서의 말로 pneuma다. 이는 ‘바람’ ‘호흡’ ‘숨’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숨결’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숨결로 호흡하면서 사는 삶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엔 눈, 코, 입, 귀, 손, 다 있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자연도 세상도 아직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도 아직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공기와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면, 바람이 그 코로 들어가고, 빛이 눈에 비치기 시작하고, 그 때부터 산천초목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새 소리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의 말소리도 듣고,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사귀게 된다. 이것이 ‘자연적 탄생’이다.<sup>15)</sup>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이다. 육체적 삶을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호흡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영혼의 햇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영적 어두움은 걷히고,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게 되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알아보고 그들과 진정으로 사귀는 참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이것이 ‘영적인 탄생’이다. 자연적 탄생을 있으면 영적 탄생도 있는 것이다.<sup>16)</sup>

영적인 탄생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창조 세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창조 세계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이러한 영적인 탄생을 믿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영과 육은 반대되거나 하나를 취하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하는 같은 차원에 놓인 수평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 물질적인 것이 제대로 보이고 또한 영적인 것은 몸을 통해 표현된다. 영적인 탄생은 이 둘을 동시에 조화 속에서 함께 보게 되는 일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인식론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 즉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적 감각으로만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

14) Ibid.

15) 존 웨슬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의 특권” 『웨슬리 설교 전집』, 제 2 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4-5.

16) Ibid., § 6.

로만 가치와 행복을 이해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것, 곧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일이 믿음이라고 말한다(히11:1).

## 2. 구원의 질서

이제 웨슬리 영성에 대한 설명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가 말한 영성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에 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자. 이와 관련된 설명들은 웨슬리의 ‘구원의 질서’(ordo salutis)에 관한 글들에서 잘 드러난다.<sup>17)</sup> 웨슬리는, 구원을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여정으로 보면서,<sup>18)</sup> 선행은총부터 시작하여 완전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은 은혜와 더불어 시작되며 여정이며 그 길은 완전(perfection)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향한 성장이 있는 여정이며, 삶 전체를 포괄하는 구원을 지향하는 순례임을 확인시켜 준다. 즉 웨슬리의 구원의 질서는 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은총 / 회개 / 칭의의 은혜 / 거듭남의 은혜 / 성화의 은혜 /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웨슬리는, 신앙생활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전 과정으로 이해한다. 구원은 단 하나의 순간적 사건 아니라, 완성에 이를 때까지 거룩성의 진보의 고정, 인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점.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그 여정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의 구원은 다층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풍부함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sup>19)</sup> 신앙은 파악해야 하는 명제(명사)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 인정, 응답하며 살아야 할 도(길[道], Doing)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하나님 형상에서 닮음까지” 성장하는 여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웨슬리가 강조한 이 ‘구원의 질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칭의와 성화의 종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함의에서 잘 드러난다. 칭의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지는 존재로 선언되는 사건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근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칭의의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 칭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머물면, 구원의 이상(理想)과 실제 삶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며, 이로 인해 주어진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17) 여기서 ‘질서’로 번역한 ordo는 ‘길’이라는 뜻과 함께 ‘질서’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ordo salutis라는 말은 ‘구원의 길과 질서’라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관례에 따라 ‘구원의 질서’로 표기하겠다. 하지만 이 말에는 구원이 순차적인 여정을 따라 진행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18)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후정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3.

19)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회심은 신앙의 궁극적 목표를 향한 방향 전환과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증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선물인 칭의가 쉽사리 법적인 허위(legal fiction)로 바뀔 수도 있다.<sup>20)</sup> 이러한 곤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 닮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구원의 확증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즉 칭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 닮음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많아져 갈 때 구원의 확증이 굳건해 진다는 것을 많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면서 깨닫게 되었다.<sup>21)</sup> 웨슬리는 여기서 칭의와 성화는 연결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고 어떤 기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이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로 변하는 그 관계의 변화(relative change)가 일어난다.<sup>22)</sup> 그리고 이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화의 은혜에 감응하는 사람이 되어, 은혜에 응답하면서 그리스도 닮음을 향해 성장하여 하나님과 변화된 관계에 어울리는 실재적 변화(real change)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sup>23)</sup> 이와 같이, 웨슬리는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는 칭의의 은혜 뿐 아니라 그 이후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성화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종합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잘 요약할 수 있다: “칭의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집의 현관이며, 성화의 은혜는 그 다양한 방들을 가진 집의 전체이다.”<sup>24)</sup>

성화는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덕의 형성, 즉 나쁜 습관이나 악을 좋은 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sup>25)</sup> 인격적이며 영적인 성숙과 발달이며,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갈5:22-23). 이러한 성화의 훈련은 구원의 확증을 증가시킨다.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칭의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의 성장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경험한다면 구원의 확증은 자연스럽게 확증될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의 종합이 중요하다.

웨슬리의 구원의 질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그것이 영성 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

20) Ibid., 113.

21) 찬, 『영성신학』, 121, 124-25;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255-57.

22) 웨슬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 § 2.

23) Ibid.

24) “If prevenient grace is the porch of the house of grace and justifying grace is the doorway, sanctifying grace represents the rooms in the expansive dwelling of God’s presence with and purposes for humanity.” Kenneth L. Carder, “A Wesleyan Understanding of Grace” <https://www.resourceumc.org/en/content/a-wesleyan-understanding-of-grace> (24-10-23 접속)

25) 찬, 『영성신학』, 127

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의 진보는 어디로 향하는가?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한다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완전은 지상 생애 동안의 목표가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러한 완전은 절대적인 혹은 죄 없는 완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완전이다. 영적 삶의 결실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완성이다. 한 마디로 “모든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그 영향력이 편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완전 성화이다.<sup>26)</sup> 웨슬리가 강조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완전을 향한 상승의 여정에는 의도의 단순성 즉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의 의도 그리고 정감의 순결 즉 “우리의 모든 기질을 지배하는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sup>27)</sup>

이와 같이, 완전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에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어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사랑의 완전은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며, “모든 수덕 훈련들이 지향하는 유일한 목표”이며, “칭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 결과”이다.<sup>28)</sup>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됨으로써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사랑 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sup>29)</sup>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완전함에 그치고 말 것이다.

### 3. 은혜의 수단(the Means of Grace)

웨슬리 영성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로 이번에는, 영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덕목들과 지침들에 관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다. 이는 주로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에 관한 설명들을 종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그의 “은혜의 수단”의 정의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 한 후, 그 “은혜의 수단”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제시해 보겠다.

웨슬리는 몇몇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sup>30)</sup>

혼과 몸이 사람을 만든다면, 영과 훈련은 기독교인을 만든다”는 말은 초대 교회에서 유명한 격언이었다. 이 말은 기독교적 훈련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Asa Mahan, *Scriptur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Boston: D.S. King, 1839), 9-10; 찬, 『영성신학』, 139에 인용됨.

27)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완전』, § 3.

28) 찬, 『영성신학』, 143.

29) Ibid.

30) John Wesley “Causes of the Inefficacy of Christianity,” in *Sermons*,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7.

웨슬리가 감리교인들에게 강조한 ‘기독교적 훈련’은 “은혜의 수단”의 활용이다. 웨슬리는 “The Nature, Design and the General Rules of United Methodist” (연합 신도회의 특성과 기획과 일반 규칙, 1743)에서 모든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모든 악을 피하므로 (Do No Harm)

둘째, 모든 선을 행함으로 (Do Good)

셋째, 모든 하나님의 성회에 참석함으로 (Attend upon All the Ordinances of God)

구원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확증하라.<sup>31)</sup>

이 3가지 덕목을 오늘날의 감리교인들에게 맞게 다시 번역하면

모든 악을 피하라(Do No Harm)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Do Good)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 (Stay in Love with God)<sup>32)</sup>

가 된다. 이 규칙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이다. 감리교인들은 칭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가능한 모든 악을 피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 그런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인간의 단독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악을 분별하고 피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의 수단’을 실천하여 이를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속에 은혜가 쌓이면 그 은혜가 우리 영과 더불어 일하시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일을 해나가도록 우리 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용한 은혜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grace)이 제도적(the instituted)과 상황적(the prudential) 은혜의 수단,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도적 은혜의 수단은 기독교 전통에서 확립되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로서 정착된’ 공적, 객관적 실천들을 지칭한다. 그러한 예로서 기도 (사적, 가정, 공적), 성경 탐구 (읽기, 공부, 묵상), 예배와 성찬, 금식, 그리스도인의 모임(소그룹, 영적 지도) 등이 있다.<sup>33)</sup>

---

31) John Wesley, “The Nature and Design of the United Societies,”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67-75.

32) “Three Simple Rules” in Rueben P. Job, *40 Days with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7), 20.

33) David Lowes Watson, “Methodist Spirituality,” Frank C. Sen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s* (Mahwah: Paulist Press, 1986). 238-40.

상황적 은혜의 수단(the Prudential Means of Grace)란 제도적 은혜의 수단에 버금가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감리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도적 은혜의 수단에 더하여 실천할 것이 요청되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 중 중요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 A.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기도 생활

웨슬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 생활을 실천하도록 감리교인들에게 권고한다.

매시간 정시에 화살기도 ;

9시, 12시, 오후 3시 거둬의 기도(collects) ;

오후 6시 묵상 ;

자기 성찰 기도 ;

다양한 기도서와 기도문 활용한 기도 실천<sup>34)</sup>

여기서 ‘화살기도’란 단어, 구 혹은 한 문장으로 간결하지만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이다. 거둬의 기도(collect)라는 기도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한 후, 묵상 중 가지게 된 소망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기도이다. 자기 성찰의 기도는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그 상황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점검하는 기도이다. 웨슬리는 또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언어를 정제하여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편 읽기, 그리고 위에 언급된 웨슬리가 출판한 기도문, 『공동기도서』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B. 성찰의 기도

존 웨슬리의 자기 성찰에 관한 가르침은 1733 초판 인쇄된 “A Collection of Forms of Prayer for Every Day in the Week,”<sup>35)</sup>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첫 감리교인들이 사용한 “A Scheme of Self-Examination”에 잘 반영되어 있다.<sup>36)</sup> 그중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

34) Outler, “Preface,” xiv.

35) John Wesley, “John Wesley’s Spirituality: A Collection of Forms of Prayer for Every Day in the Week,” *John and Charles Wesley*, ed. by Frank Whaling,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Mahwah: Paulist Press, 1981), 77-84.

36) John Wesley, “A Scheme of Self-Examination,” *John and Charles Wesley*, ed. by Frank Whaling,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Mahwah: Paulist Press, 1981), 85-87.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질문:**

- 1)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 2) 나는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 3)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질문 (주일 저녁):**

- 1)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를 묵상하고 생각할 경건한 시간을 가졌는가?
- 2)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쉼과 거룩함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힘썼는가?
- 3) 나는 기도와 묵상, 말씀을 읽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들을 꼭 필요한 일과 남을 돕는 사용했는가?

**‘이웃 사랑’에 관한 질문(월요일 저녁)**

- 1)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는지 양심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 2) 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 3) 나는 이웃의 부족함을 보고 분노하기 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가?
- 4) 나는 좋은 대책 없는 반대, 혹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가능성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
- 5)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항상 최종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sup>37)</sup>

성찰은 하루의 삶에서 겪었던 사건들 속에서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다가왔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을 점점함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 대해 늘 깨어서 섬세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으로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슬리는 이런 점을 잘 알고 그러한 성찰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감리교인들에게 당부하였다.

---

37) 존 웨슬리, “일주일 간의 아침과 저녁 자기 성찰표” 『존 웨슬리 논문집 I』, 권희순 역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384-386.

## C. 언약의 기도

언약의 기도는 웨슬리가 신자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이다. 웨슬리는 이 기도문을 1755년 8월 ‘언약 갱신 예배’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새해 첫 예배에서 사용되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맡기소서.

저로 행하게 하소서.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을 위해 쓰시고, 주님을 위해 쉬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저를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저를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시며, 아무 것도 갖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기꺼이 전심으로 드리나이다.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당신은 나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제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sup>38)</sup>

---

38) “웨슬리의 계약기도” (The Wesley Covenant Prayer) [조병철 목사 번역].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mod=document&uid=87124\(24-10-23](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mod=document&uid=87124(24-10-23) 접속)

“The Wesleyan Covenant Prayer”

<https://www.chapelwood.org/am-site/media/wesleyan-covenant-prayer.pdf> (24-10-23 접속)

## D.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1735)은 존 웨슬리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감리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편집, 출판 하면서 그 서문에 써놓은 것이다.<sup>39)</sup>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서 묵상, 그리고 영적 고전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정리한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서방 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가 연상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 1. 시작 : 습관 형성하기: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적 독서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이것을 지키십시오.

### 2. 준비 : 순수한 의도, 간절한 기도

둘째, 순수한 의도로, 오직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다짐으로 독서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독서하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나아가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단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내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비는 간절한 기도로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 3. 진행 : 기억과 반복

셋째, 반드시 여유 있게, 신중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읽어야 합니다. 읽는 중간 중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비추는 깨달음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때때로, 읽은 것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를 숙고하십시오. 그대의 읽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문장들, 특히 그대의 영적 성장에 적합하고, 그대의 실천에 요긴한 구절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 4. 지속 : 열정을 구하라

넷째로, 그대가 읽은 것에 상응하는 감흥을 일깨도록 하십시오. 그저 지식만 더할 뿐 감동도 열정도 없는 독서는 무익합니다. 읽으면서 행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더하십시오. 그분의 빛(지혜)뿐 아니라 그분의 열정을 구하십시오.

---

39) John Wesley, “Advice on Spiritual Reading, Part of the Preface to John Wesley’s Abridgement of Thomas Á Kempis’ Treatise of the Imitation of Christ,” 88-89.

## 5. 마무리 : 화살기도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로 영적 독서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자라서 결실을 맺고, 그 열매가 영원한 삶을 낳게 하십시오.<sup>40)</sup>

## E. 찬송가 부르기

“감리교인은 존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배운 것만큼이나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통해서도 교리를 배우고 익혔다”고 평가할 정도로 찬송 부르는 감리교인들의 중요한 영적 훈련이었으며,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 하나였다.<sup>41)</sup> 이를 위해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중 아래에 소개된 것 같이, 많은 수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 22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 34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 126 천사 찬송하기를 기록하신 구주께
- 164 예수 부활 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 하여라 할 - 렐 - 루-야
- 170 내 주님은 살아계서 날 지켜 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이중 “하나님의 크신 사랑” (C. Wesley, 1747) 중 제 4절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없게 하시고  
주의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21세기 찬송가』 15 장).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에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과 신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실천들에 대해서 지식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열정을 함께 가지도록 고취하고 있다.

---

40) 남기정, “존 웨슬리의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 권혁일 편 백투더 클래식 (고양시: 예수전도단, 2015), 127-140.

41) Outler, “Preface,” xiv-xv.

## F.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웨슬리가 강조한 은혜의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모든 훈련이 이러한 모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수많은 대중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회심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신도회’(the Methodist Society)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쓴 “A Plain Account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한 평이한 해설)이라는 논문에서 ‘신도회’의 발전에 관해 서술한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즉시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거의 없었다.<sup>42)</sup>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능한 자주 모여 서로 대화하도록 하고,” “서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고,” “서로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권면하였다. 그러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약해져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신도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였다.<sup>43)</sup>

웨슬리는 점점 늘어나는 신자들의 모임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기 위하여 신도회들을 묶어 주요 도시 마다 연합 신도회를 결성하고 “The Nature, Design, and Gen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y”라는 글을 써서 모든 신도회의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규칙과 이 모임에서 해야 하는 훈련들을 정리하였다.<sup>44)</sup>

신도회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임이었으며, 규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앙 실천을 훈련하는 모임이다. 이것을 위해 모든 신도회원들은 12명 단위로 된 속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되도록 하였다.<sup>45)</sup> 이 속회를 통해 영적 지도와 권면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도회원들은 반드시 목회자를 만나도록 해서, 영적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밴드’(band)를 두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6)</sup>

---

42) 존 웨슬리,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한 해설” 『존 웨슬리 논문집 I』, 김진두 역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 I.1-8.

43) Ibid.

44) John Wesley, “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 (1743),”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45) Ibid.

46) John Wesley, “Rules of the Band Societies (1738),”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 (1989), 77-79.

이와 같이 웨슬리는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온정적이면서도 규율을 가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 교회가 전통적으로 훈련해온 신앙 실천들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감리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 결론

‘영적’이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 성화되는 것”이며 영성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때, ‘영성학’은 그 영향력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웨슬리의 영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웨슬리가 성령의 성화시키는 영향력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웨슬리의 영성을 파악하는 길일 것이다.

본 보고서는 웨슬리 영성의 성격을 “새로운 탄생,” “구원의 질서,” “은혜의 수단”에 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하게 된 웨슬리 영성의 특징은, 그것이 개신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독교 전통의 성화 훈련을 종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지속하면서 하나님 닮음과 연합이라는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일에 대해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근/현대 즉 모던이라는 시대 속에서 펼쳤다는 점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웨슬리의 영성은 오늘날, 여전히 modernity(근대주의)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데 많은 가르침과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듯이, 웨슬리의 영성은, 신앙이 지성화되고 형식화되어 실천과 삶으로부터 괴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자칫 물질세계 속에 매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을 자연계와 더불어 그 너머를 함께 바라보게 하는 인식을 일깨움으로서 영적인 균형을 갖춘 신앙적 성숙을 지향하게 한다. 또한 공동체를 강조하는 영성으로서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하면 거듭남, 구원의 질서,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는 웨슬리의 영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영성이다.

## 참고 문헌

---

-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신학,” *신학과 세계* 제99호 (2020, 12): 321-361
- \_\_\_\_\_ “존 웨슬리의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 권혁일 편 『백투더 클래식』, 127-140. 고양시: 예수 전도단, 2015.
- 사이몬 찬, 『영성신학』 김병오 역. 서울: IVP, 2002.
- 존 웨슬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의 특권.” 『웨슬리 설교 전집』, 제 2 권. 33-4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후정 역.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일주일 간의 아침과 저녁 자기 성찰표” 『존 웨슬리 논문집 I』, 권희순 역. 384-386.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 \_\_\_\_\_ “메도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한 해설” 『존 웨슬리 논문집 I』, 김진두 역. 13-46.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 \_\_\_\_\_ “웨슬리의 계약기도” (The Wesley Covenant Prayer) [조병철 목사 번역].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mod=document&uid=87124> (24-10-23 접속)
- Carder, Kenneth L. “A Wesleyan Understanding of Grace”  
<https://www.resourceumc.org/en/content/a-wesleyan-understanding-of-grace> (24-10-23 접속)
- Holder, Arthu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Spiritualit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5
- Job, Rueben P. *40 Days with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7), 20.
- Rack, Henry D. *Reasonable Enthusiast: John Wesley and the Rise of Methodism*. Cambridgeshire: Epworth Press: 2014.
- Watson, David Lowes. “Methodist Spirituality.” Frank C. Senn, ed.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s*. 217-273. Mahwah: Paulist Press, 1986.
- Wesley, John.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in The Appeals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Certain Related Open Letters*, ed Gerald Cragg,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I.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_\_\_\_\_ “Causes of the Inefficacy of Christianity.” In *Sermons*.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V. 85-96.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_\_\_\_\_ “The Nature and Design of the United Societies.”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 Nashville, Abingdon, 1989.
- \_\_\_\_\_ “Rules of the Band Societies (1738).”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X. 77-79.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_\_\_\_\_ “The Wesleyan Covenant Prayer”  
<https://www.chapelwood.org/am-site/media/wesleyan-covenant-prayer.pdf> (24-10-23 접속)
- Whaling, Frank, ed. *John and Charles Wesley: Selected Writings and Hymns*,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Mahwah: Paulist Press, 1981



## 제35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

**위원장**                    채성기

---

**부위원장**                오윤기

---

**서기**                        유경열

---

**위원**                        강이규, 한원식, 손진성, 김남신, 정병무, 호은기, 조성철,  
최택용, 전백순, 박재홍, 안준호, 정현범, 김 곤, 김미숙

---

**당연위원(본부임원)**    태동화, 김두범, 문영배, 신현승, 이용윤, 김정수

---

**전문위원**                이성우, 남기정, 장진원

---

**제안 최종정리**            이성우, 남기정, 장진원, 최택용, 오윤기

---



#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장단기발전위원회 편

발행인 이철

편집인 채성기

발행일 2024년 10월 30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http://www.kmc.or.kr>

편집 유성중

디자인 이윤정

인쇄 동영디자인예

\*비매품





[www.kmc.or.kr](http://www.kmc.or.kr)